'하늘天, 땅地…' 천자문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숨어있네

이야기천자문
천명일 지음
지혜의 나무 펴냄 | 2만5000원

"'천(天)' 자를 파자로 풀면 '一大'가 된다. 큰 대(大)자를 파자로 풀이하면 숫자 육(六)이 된다. 따라서 천(天)자는 일(一)과 육(六)이 되는 셈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1과 6을 '수(水)'라 한다. 수소분자의 모양도 육각이다. 참으로 하늘은 수소가스로 가득하지 않은가?"

한자를 음과 훈, 또는 모양으로 나누어 그 한자가 제시하는 본연의 뜻을 찾아내 불경과 더불어 마음 다스리는 천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 천자문>이 나왔다.

우선 이 책이 기존의 <천자문> 해설서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천자문>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번 해설은 한자가 연원적으로 본래 우리글이었음에 착안하고 있으며, 한자의 모양을 주의 깊게 보면 그 문자가 상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기획 취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천자문>의 해설을 인류의 본질 문제와 항상 연결해 한자 한자 풀어가고 있다. 때론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해 <천자문>을 풀이하기도 한다. **김주일 기자**

사람과 자연이 있는 山寺 풍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지현 지음|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원

"어제는 삼천배 철야정진 입재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정진에는 아랫마을 사시는 80대 노보살님이 동참하셨다. 절하시는 모습이 내내 힘들어 보였으나 보살님은 쉬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향해 절하시는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움을 담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80노보살님의 삼천배中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오랫만에 책을 냈다. 3년동안 청량사에 머물며 마주친 사람들과 자연에 대한 단상을 붓가는 대로 쓴 수필집이다. 지현 스님이 오랜 세월 청량산이 전하는 무정설법을 들으며 청량사에 머물렀기 때문일까? 스님의 글은 청량산을 닮아 있다. 청량사의 바람소리, 쏟아질 것 같은 별 빛, 산중에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법고 소리가 스님의 펜과 만나면 영롱한 시어로 때로는 깨달음의 법문으로 또 세태를 꼬집는 날선 언어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책은 '사람이 있는 풍경' '끝없는 이야기' '생의 한 순간' 등 3부로 구성됐다. 지현 스님은 청량사의 사계중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한여름이지만 책 표지를 눈쌓인 청량사의 모습으로 장식했다.

책 내용중 '눈이 내린다'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새벽에 눈이 내린다. 눈은 그저 내릴 뿐이고 그리하여 고요해질 뿐이다"라며 적막한 산사의 겨울을 선(禪)적으로 표현했다.

지현 스님은 "제목이 주는 의미는 구도의 길과 수행의 길이지만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산사의 모습과 인간 군상들을 수채화식으로 풀어내 2시간 정도면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틈틈이 찍어 놓은 청량사의 사진들도 곁들여 놓아 읽는데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3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5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6	불교란 무엇인가	우룽	효림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9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10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현대불교 후원계좌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

40% 파격 할인 판매!

올 여름엔 禪書 삼매경에 풍덩 빠져보세요~!

■기간 7월16일~8월 17일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할인가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정가 1만3000원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아냈다. 또한 전법 현장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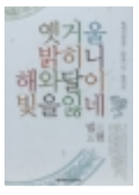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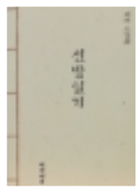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서옹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를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지음

정가 6000원 →할인가 3600원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서.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개-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키듯, 남전의 고양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신고 등 46편의 글을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꾹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시(禪詩)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 허응당 보우 - 선의 마음 시의 마음,청허당 휴정 -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 -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02)737-0695 book.buddhapia.com

■예금주 : (주)에이치비엠씨 <농협> 053-01-269062